민족문화연구 “한국 문화의 정체성” 특집의 말

민족문화연구원은 한샘DBEW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학, 역사학, 철학, 미학, 사회학, 종교학, 건축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탐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초청 토론회를 열었으며, 2019년 5월에는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 특집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총 9편 중 역사, 미술, 종교의 주제를 다룬 3편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최종석의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특징으로만 부각되었던 ‘사대’(事大)의 외교의례가 고려 후기에 원(元) 복속기의 외교의례를 전유하여 형성되었음을 규명한 연구다. 이는 천자국인 명(明)과 제후국인 조선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청(淸)과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제후국의 외교의례의 역사적 연원을 확장하는 시각을 선보인 것이다. 필자는 특히 원 복속 이전까지만 해도 대외적 외교의 현장에서만 황제와 제후(신하)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례를 거행하고 대내적으로는 그러한 위상을 구현하는 의례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영조례와 배표례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황제와 제후(신하)의 관계를 상징하는 외교의례가 대외적 차원은 물론 대내적 차원에서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원 복속기 이후 고려를 거쳐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전유하여 구현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론은 대외적 외교 차원에서 세계질서를 형식적으로 수용했던 한국인들이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 이후부터 국제질서를 대외적 외교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의례를 전유하고 계승했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의 내면화를 지향했던 한국 문화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역사적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에 비해 정혜린은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서 본 ‘한국 미술’」을 통해 20세기 초 이래 순수한 한국적 미를 모색했던 기획이 ‘자연 대 문화’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인위적 문화와 대비되는 순수한 자연만으로

국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진행된 담론이 한국 미술이 타문화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문화사대론은 물론 타문화와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한국 미술의 독자성을 역설하는 내재적 발전론이 공유하는 가정이라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1970년대 한국 미술의 독자적 경향으로 부각되어 온 '단색화'를 주목하는 논의들 역시 이러한 전제 아래 인위적 문화를 배제한 자연으로 한국 미술의 입지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러한 비판적 접근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배타적 주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타문화권과의 교류와 변화를 통해 혼종성을 갖추고 정련되며 성숙되어 온 문화혼성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반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종천은 「가족종교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종교문화」에서 한국종교문화가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상호문화적 작용을 통해 계승, 재전유, 변용, 혁신을 이루어 온 '종교가족'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을 규명하는 한편, 혼성적 한국종교문화가 다른 문화권과 공유하는 공통성과 차별적인 특성을 균형있게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효의 영성과 혈연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가족의 가치들을 재전유하는 '가족종교'의 양상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가족종교'적 특징들을 규명하였으며, 아울러 가족종교가 아버지 중심에서 어머니 중심으로 이행하는 한국적 양상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종교문화의 개성을 가족종교의 차원에서 설명하여 타문화권과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면서도 가족종교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상이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종교전통별로 새롭게 재전유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특집에 실린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한국 문화의 정체성 논의가 선험적 주체성이나 배타적 순수성을 전제로 삼아 전개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문화권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문화적 교류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재전유하는 양상을 통해 오히려 풍요로워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체성이 일원적이고 단면적이며 배타적이고 고정적인

주체성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관계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민족문화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들을 디딤돌로 삼아 정체성 논의의 기준과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사철의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걸쳐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